

##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 부모 참가자를 대상으로 -\*

장경근\*\*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부모의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통전적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정 중 의도적 표본표출 방법을 통해 6가정의 부모를 선정하여 개별 심층면접과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스트라우스(Strauss, 1987)가 제시한 분석 절차에 따라 개방적 코딩과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의 과정을 거쳐 213개의 의미 단위, 64개의 하위범주, 15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프로젝트 참가 전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활양식에서 「중도위기」, 「대물림」, 「무지와 편견」, 「일방불통」, 「부재와 한계」, 「열망에 응답하다」의 범주가 도출되어 신앙인들의 가정이 신앙 양육 공동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변화에서는 「습관과 의지의 충돌」, 「약속과 지속적인 도전」, 「자기 반성적 성찰」, 「소통과 공감」, 「내가 소중하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가정」, 「성경적 생활양식의 정착」, 「가정에서 행복을 찾다」의 범주가 도출되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정들이 신앙양육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성경적 생활양식을 확립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이 맞이하길 원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통전적 차원의 연계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가정, 양육 공동체, 생활양식, 부모 교육, 자녀 양육, 양육 경험, 질적 연구

\* 이 논문은 2016년 박사학위논문 “기독교 가정의 신앙양육을 위한 가정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 참가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사회복지박사과정

2016년 10월 8일 접수, 11월 7일 최종수정, 11월 8일 게재확정

## 1. 서론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그 세 가지 조건은 바로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오늘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성경은 이처럼 약화되어가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이를 부모의 제1차적인 직무로 규정한다(창 18:19; 신 6:4-9). 가정에서 부모는 교사가 되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자녀들의 인성을 교육해야 한다(정정숙, 2004).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정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당시 회당과 같은 교육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정은 신앙을 비롯한 인성과 직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공간이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가정의 생활양식으로 정착시켜 유지해오고 있다(신승범, 2013).

최근 들어 이러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시하였다(교과부 학부모지원과-218). 밥상머리 교육은 주 1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자녀의 인성을 교육하는 것으로 가정의 붕괴,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밥상머리 교육 매뉴얼을 개발한 이현아(2014: 107)는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으로 그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을 통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예절과 절제, 배려 등 기본적인 인성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가정 내 자녀 교육의 필요성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신앙적 가치보다는 출세와 성공 지향적인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되었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ell, 1981).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 태도와 가정 내 부모의 신앙교육의 약화는 기독교 가정과 교회 주일학교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상진, 2009).

박상진(2009)은 이러한 가정과 교회 주일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통전적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통전적 기독교교육이란 인간을 분석적

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전인격적이고 전인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한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 옥장흠(2012)은 통전적 기독교교육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싼 주변과 생태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간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은 인지적 학습에 중점을 두어 배움과 삶이 괴리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부모들은 자녀를 교회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여겨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와 주일학교 교사에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부쉬넬(Bushnell, 1979)에 의하면, 학령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책임과 신앙적 양육의 효과는 주일학교 교사의 그것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일상을 함께하는 부모의 가르침과 삶은 자녀의 신앙 형성과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근 교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밥상머리 교육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 교육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통전적 교육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교회 역시 주일학교의 위기와 각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신앙 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통전적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해 배움과 삶을 일치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통전적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해 통전적 신앙 육을 시도하고 있는 North Point Community Church의 가정 사역 책임자인 조이너(Joiner, 2009)는 일요일 한 시간 교회에서만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화선(2004) 역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의 통전적 연계를 가능케 하는 가정의 성경적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교회에서 시행되는 가정 프로그램들은 기존 가정에서 시행되어오던 가정예배, 기도훈련 등을 강조하거나 가정 내 하위 체계에 대한 치유적 프로그램이나 과정 이수를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의 형식에 머물러 있다(정현숙, 2012).

전북 은누리교회에서 시도된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는 교회와 가정을 연계함으로써 신앙교육에 대한 인지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통전적 교육 모델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제정하신 제도로, 가정을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 양육 공동체로 규정한다(권오진,

2012). 무엇보다도 가정은 양육 공동체로서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신 6:4-9). 그러나 기독교 가정들 가운데 가정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정체성을 생활양식으로 실천하며,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박행님, 2009).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녀의 신앙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성경적 생활양식을 정립하기 위한 교회와 가정의 통전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각 가정들이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성경적 생활양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12주 과정의 반복된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프로그램들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가정들이 가정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는 생활양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중간 모니터링과 개별면담을 통해 각 가정에 맞는 성경적 생활양식을 모색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인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 부모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통전적 신앙양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참여 경험이 가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태도, 자녀의 변화, 가정의 생활양식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경험 분석에 근거하여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통전적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을 정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기독교 가정 생활양식에 대한 성경적 이해

#### (1)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

일반적으로 가정이란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을 통해 결합되어 주거를 함께하는 생

할 공동체를 의미한다. 레비 스트로스(Levi Strauss, 1969: 46)는 “가정은 결혼으로 시작되어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며,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 경제적, 종교적인 권리와 의무,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에게 가정이란 단순히 남녀 간의 결합이나 제도의 의미를 넘어선다. 기독교는 가정의 출발을 하나님에게 둔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모습으로 보셨다(창 2:18).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 가정을 세우셨다.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설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Sell, 1981). 또한 성경은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시 127:3)으로,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출 12:3)으로 규정함으로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함을 확증하였다(정정숙, 2004).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이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기능해야 한다.

## (2) 신앙 양육공동체로서 기독교 가정의 성경적 생활양식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신앙이 전승되기를 원하셨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녀와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신명기 6장에 와서 구체화된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가르침의 주체로서 부모를(7절), 부모가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1절), 그리고 가르침의 장소로서 가정을 규정하고 있다(7절).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교사와 상담자, 삶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정정숙, 1994).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종교적인 생활에 대한 규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전반에 관한 규범과 양식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법과 규례와 함께 삶의 양식 전반에 걸친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에 관한 규례(레 11:2-44; 신 14:3-21), 의복에 대한 규례(신 22:5), 자녀 출산에 대한 규례(레 12장), 병에 대한 규례(레 13-15), 성도덕에 관한 규례(레 18:1-18),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신 24:1-4), 이

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레 19:16-18; 19:32) 등이 있다.

이스라엘의 교육 제도는 바벨로 포로 시기 이후에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포로 시기 이전 그리고 이후에도 부모는 가정에서 형식적, 비형식적 양육 방법을 통해 자녀를 가르쳤다(최정민, 2016). 부모는 가정에서 구전으로 자녀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할례와 성인식, 안식일과 기도훈련, 절기와 같은 생활주기와 의식을 통해서 자녀에게 여호와와 그의 법과 규례를 가르쳤다. 또한 성경의 일부를 새긴 양피지 조각을 넣은 가죽상자인 '테필린(Tefillin)'을 이마와 손목에 착용하고 신명기 6장 4-9절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를 담은 통인 '메주자(Mezuz)'를 문설주에 부착하는 것과 같은 상징을 통해서도 가르쳤다(배호준, 2003). 자녀는 가정의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부모로부터 경제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배움으로써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다(오인택 외, 1994). 이와 같이 신앙의 전승은 부모의 가르침만이 아닌 부모의 삶과 가정의 생활양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 2. 선행 연구 고찰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와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쉬넬은(2004)은 기독교 가정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언약 공동체로 보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가정의 본질이며, 정체성이다. 이러한 기독교 가정의 본질에 대하여 이정관(2015)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거룩한 관계로 보았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일체감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규민(2013)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영적 영역, 지적·정서적·의지적·도덕적인 부분을 다루는 정신적 영역, 그리고 육체적 건강과 경제활동, 세상과의 관계를 다루는 물질적 영역을 제시한다.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녀 교육은 영적인 영

역만이 아닌, 정신적, 물질적인 영역을 포함한 전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통전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가정의 핵심적인 자녀 교육의 방법으로 제안되는 것은 가정예배이다(백성재, 2010; 박진숙, 2013; 박명수, 2013; 구재익, 2015). 박명수(2013)는 자녀들의 예배 참여를 위해서는 전통적 예배 방식이 아닌 한국사회의 트렌드와 다음 세대의 문화에 적합한 예배 예식과 예전적 삶이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정 예배는 가장 전통적인 자녀 교육방식이면서도 지속되어야 할 가정교육 방법이다. 가정예배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자녀들을 예배자로만 세우기보다는 예배인도자로 세워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예식과 예배와 연계되는 활동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기독교 가정은 자녀의 인성과 생활훈련과 함께 자녀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박미라, 2012).

기독교 가정에서의 성경적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독교 부모들 또한 자녀양육과 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정희정, 2009). 이러한 필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독교 부모 교육을 받는 기독교인 부모는 많지 않다. 장금석(2011)이 서울특별시 거주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비기독교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기독교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른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의 부모 교육은 자녀양육을 위한 원리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기독교 가정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이행에 자녀 양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정희정, 2009; 김성원, 2012). 부모 교육은 자녀양육의 실제적인 효율성을 위해 부모 역할과 기술훈련, 자녀의 기질과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가족 갈등과 문제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해야 한다(이광희, 2006; 김수정, 2012).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Divine Institution)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요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목회를 추구한 한국교회는 가정과 가정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다(Smart, 1954).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자 한국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가정 역시 그동안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임하고 가족 구조의 변화와 높은 이혼율, 청소년의 탈선과 사회문제 등으로 인하

여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김기숙, 2006).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한 자녀 교육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진(2009)은 교회와 가정의 위기를 교회와 가정의 분리, 가정과 학교의 분리, 교회와 학교의 분리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교회와 가정, 학교가 연계된 통진적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는 치료적 접근과 예방적 차원의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료적 접근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에 집중하여 개인적 차원이 아닌 가족적 차원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갖는다. 일반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발생한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보기에 기독교적 관점의 접근과 치료방법이 요구된다. 김미애(2008)는 성경의 원리로서 원가족과의 분리가 문제 발생을 예방한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병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개인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치료의 영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가족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박은배(2010)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 표상에 대한 대상관계이론 학자들의 이론을 고찰하고 건강한 가정의 회복방안으로 가족 간의 대화를 제시한다. 기독교 가정의 특성상 교회의 개입은 중요하다. 이혜숙·조혜진(2009)은 기독교인의 개인 및 가족 상담, 신앙상담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존감과 수입, 교회 출석기간, 가족 기능 정도가 가족상담 욕구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낮고 가족기능 정도가 낮을수록 상담 욕구가 높다는 것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기독교 가정의 치료적 접근에 관한 연구는 가정의 본질과 특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가정을 문제시하는 측면이 강하며, 가정의 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다.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예방적 차원의 가정생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행님(2009)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기독교 가정생활 교육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기독교 가정생활 교육에 대한 신학적, 교육학적 이론 정립과 가정생활 주기에 따른 교육과정 체계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가정생활 교육의 교육과정 체계는 신학적, 교육적 내용에 치우쳐 있어 실제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생활상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권오진(2012)은 기독교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경적 가정을 세우기 위한 6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 생활양식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정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제한되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변화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가정의 생활양식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가정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한 김도일(2015)은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사역을 통해 건강한 신앙학습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생태학적 신앙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가능케 하는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의 연계방안으로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신승범, 2013), 부모 교육 프로그램(김현자, 2007; 김선아, 2010; 김수정, 2012), 가정 중심적 양육 프로그램(나삼진, 2005; 이정관, 2015)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가정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생활양식과 실천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은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이 교육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등의 다학제적인 학문 영역에 속한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질적 사례 연구

본 연구는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부모들이 이 프로젝트를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사례 연구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사례 또는 사례들)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에 따른 현상의 변화과정

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Creswell, 2010). 본 연구는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체계에 속한 참여자들이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전과 후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따라서 질적 사례 연구는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판단된다. Yin(2009)은 질적 사례 연구는 현상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프로그램의 실행과 그 효과를 연결시키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한다.

## 2. 연구 현장

연구자의 주된 연구 현장은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온누리 교회이다. 온누리 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21년 된 교회로, 130여 세대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 규모의 교회이다. 온누리 교회의 주된 특징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성인 등록 교인의 75% 이상이 30대 후반-40대 후반의 자녀를 둔 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인 분포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는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의 생활양식을 정립하기 위해 온누리교회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로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2012년 1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6년 6월까지 6차가 진행되었다.

## 3.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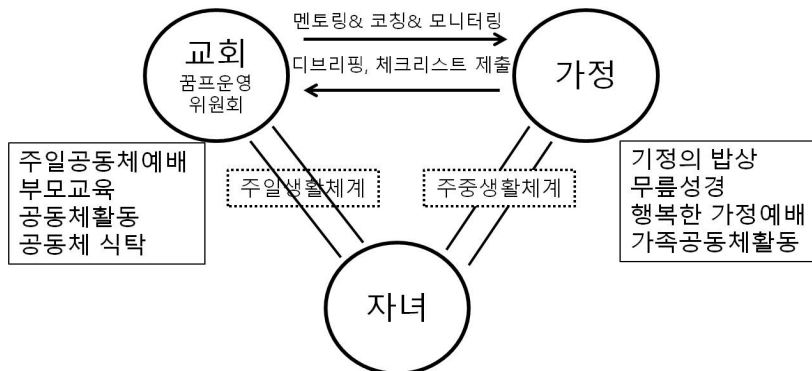
### (1)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이하 '꿈프') 취지와 체계 수립 과정

꿈프는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가정이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생활양식(Life Style)을 형성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젝트이다. 2011년 1월, 온누리 교회 교육담당 목사(사회복지석사), 청소년 전문 사역자(청소년 지도사 1급), 초등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꿈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신앙 양육공동체로서 성경적 가정의 생활양식 체계(F5)를 정립하였다. 꿈프의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North Point Community Church의 가정 사역 책임자인

조이너(Joiner, 2009)의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는 패러다임은 그 단초가 되었고, 미국 North Point Community Church의 ‘싱크 오렌지’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세대로교회(담임목사 양승헌)의 교회와 가정의 연계 시스템을 참고하였다.

## (2) 꿈프의 운영 체계 및 주요 활동

꿈프의 운영체계는 교회의 꿈프 운영위원회와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이다. 꿈프의 주요활동은 가정의 성경적 생활양식으로 개발된 ‘F5’이다. F5는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성경적 가정 원리에 근거한 가정의 생활양식으로 ‘무릎성경(FB: Family Bible)’, ‘공동체 활동(FA: Family Activity)’, ‘부모 교육(FC: Family Coaching)’, ‘기적의 밥상(FD: Family Dinner)’, ‘행복한 가정예배(FW: Family Worship)’로 구성되어 있다. 꿈프 운영위원회는 꿈프의 실행을 위해 교회적 차원의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꿈프 참여 가정이 F5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주일에는 부모교육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을 기획 운영하고 가정에서 진행되는 무릎성경과 가정예배, 가족 공동체 활동과 기적의 밥상을 위한 활동 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와 일대일로 무릎성경을 진행하고 가정예배와 공동체 활동, 기적의 밥상에 참여하며 주일에는 참가자 부모 모임을 통해 한 주간 활동을 디브리핑하며 부모 교육과 피드백을 받는다. 자녀 또한 부모와 함께 무릎성경과 가정예배, 공동체 활동과 기적의 밥상에 참여한다. 자녀는 주일에 참가 자녀 모임을 통해 한 주간 활동을 디브리핑하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 꿈꾸는 땅 만들기 프로젝트의 운영 체계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꿈프 운영 체계 : 가정과 교회의 통전적 연결모형

### ① 무릎성경(Family Bible)

첫 번째 활동은 부모와 자녀가 일대일로 하는 성경공부로 무릎성경(Family Bible)이라 한다. 무릎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가르침을 주는 직접적인 활동으로 성경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확립하고자 기획되었다. 부모는 매주 1회 자녀들과 일대일의 만남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본문 해설노트와 질문노트를 활용하여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진행한다. 질문의 형태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문답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열린 구조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릎성경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 ② 기적의 밥상(Family Table)

두 번째 활동은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기적의 밥상(Family Table)이다. 기적의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식탁 교제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경험하게 한 것에서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식탁 교제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경험하며 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기획하였다. 이러한 밥상에서의 대화는 자녀의 인성 함양은 물론 두뇌 발달과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BS 스페셜 제작팀, 2010).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기적의 밥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실천 지침과 기적의 밥상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매주 제공하여 준다.

### ③ 행복한 가정예배(Family Worship)

세 번째 활동은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예배(Family Worship)이다. 행복한 가정예배는 삶으로 예배하는 전인적 예배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각 가정은 매주 1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예배 예식과 예배 순서자는 가족 구성원이 정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한 달에 한 번은 스페셜 데이로 식사와 예배, 공동체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데 식사 메뉴를 정하고 요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공동체 활동에 이르기까지 가족 구성원이 가족회의를 통해 모든 결정과 역할을 함께한다. 교회는 이를 위해 행복한 가정예배 실천지침과 실행 예시, 그리고 예배 후 진행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활동을 제안하

여 제공한다.

#### ④ 공동체 활동(Family Activity)

네 번째 활동은 꿈프에 참여하는 전 가족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활동(Family Activity)이다. 공동체 활동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함께 어울리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자녀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약속과 책임에 대한 강조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공동체 활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매 주일 부모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대별로 모둠을 형성하여 공동체 활동을 하였다. 두 번째 방식은 6주차에는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식탁 만들기과 9주차에는 참가 가정 전체 가족 공동체 활동 등의 형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⑤ 부모 교육(Family Coaching)

마지막 다섯 번째 활동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점 및 태도 변화를 위한 부모 교육 (Family Coaching)이다. 부모 교육은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기존 인식과 태도를 점검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성경적 사고를 갖게 하고, 꿈프 진행에 따른 부담감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프 활동에 대한 지지를 위해 기획하였다. 매주 주일 저녁 부모들은 디브리핑을 통해 한 주간 가정에서 진행된 꿈프 활동에 대해서 나누고 피드백을 통해 활동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 이후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주제 강의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주제 강의의 내용은 <표1>과 같다.

### (3) 꿈프 진행 로드맵

꿈프를 실행하기 전, 교회에서는 2개월에 걸쳐 매주 주일 오후예배에 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설교를 진행하였다. 꿈프 1차 집중훈련 안내 공고가 나간 후, 꿈프의 취지와 목적, 집중훈련에 대한 안내를 위해 잠재적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모 설명회 후 참가 신청 가정은 가정 구성원들이 동의하여 서명한 참가 신청서와 참가 서약서, 자기소개서, 가정 생활양식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

였다. 또한 참가 부모는 자녀양육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해 ‘비폭력대화’,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 등 2권의 책을 독서토록 하였으며, 자녀들과 함께 SBS 다큐 ‘밥상머리의 기적’과 EBS ‘세계 교육 현장을 가다 이스라엘 편’을 시청하고 각각 독서 감상문과 시청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가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 각각 면접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F5 활동을 가정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면접과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꿈프 집중훈련 참가 가정을 선정하였으며 12주간의 꿈프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가한 전 가정을 대상으로 4-8주 사이에 꿈프 진행활동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과 재컨설팅을 진행하여 각 가정에 맞는 생활양식을 정립, 정착하도록 하였다.

주 차	Family Worship (주일설교본문/ 행복한 가정예배)	Family Bible (무릎성경)	Family Activity (공동체 활동)	Family Coaching (부모 교육)
1	요 2:1~11	실천하는 마음	여는 놀이1 모둠 나누기	오리엔테이션
2	요 6:3~14	나눔	여는 놀이2	대화법 - 듣기
3	요 9:1~7	순종	협력놀이1 신체활동	대화법 - 말하기
4	요 11:32~44	위로	협력놀이2 신체, 감성활동	남과 여
5	요 13:1~15	서로 섬김	협력놀이3 신체, 지성활동	도덕성
6	요 13:31~35	서로 사랑	가족 공동체 활동 : 공동체 식탁 만들기	
7	요 19:17~30	친구를 위해 희생	협력놀이4 신체, 사회성활동	자존감
8	요 21:15~23	실천하는 사랑	대화놀이1 : 경청	다중지능
9	시 1:1~6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	가족 공동체 활동	
10	시 23:1~6	하나님의 보호하심	대화놀이2 : 자기표현	사춘기
11	시 33:1~22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	오리엔테어링	미디어
12	시 133:1~3	서로 연합하는 생활	닫는 놀이	형제

〈표1〉 꿈프 1차 12주 일정

### 3.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의도적 표본표출(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위하여 가장 적절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되, 12주 활동기간 동안 결석 없이 참여한 가정으로 하였다. 둘째 기준은 프로젝트에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가정으로 하였다. 셋째 기준은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가정으로 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을 확정한 후에 참여 가정에 대한 다양한 특성과 준거들을 파악한 후에 8사례를 발굴하였고 연구에 동의하는 6가정의 남편 4명과 아내 6명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가정의 남편은 연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혀 제외하였다.

사례 구분		연령	학력	직업	교회직분	자녀수	결혼기간
A	남편 A1	44	고졸	공무원	집사	2	14
	아내 A2	40	고졸	사회복지사	집사		
B	남편 B1	40	대졸	은행원	집사	3	13
	아내 B2	35	고졸	회사원	집사		
C	남편 C1	33	대졸	교사	집사	2	7
	아내 C2	31	대졸	교사	집사		
D	아내 D	37	대졸	주부	집사	3	10
E	남편 E1	44	대졸	직장인	집사	2	9
	아내 E2	42	대졸	교사	집사		
F	아내 F	44	고졸	주부	집사	3	17

〈표2〉 연구 참여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교회직분, 자녀수, 결혼기간

#### 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자는 2012년 1차 프로젝트부터 꿈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참여관찰을 진행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참가 신청자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참가 부모와 자녀들과 레포를 형성하였고 참가자들이 작성한 가정 생활양식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기간 중 4-5주차 기간에는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참가자들이 겪는 느낌과 어려움에 대한 비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6가정의 10명의 부모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뒤에 심층면담을 요청하였고, 모두 인터뷰에 응하였다. 심층면담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간 온누리교

회와 각 가정 등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각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참여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3회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 참여관찰, 개별 심층면담, FGI, 꿈프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및 체크리스트, 가정 모니터링 보고서, 참가 소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사례 연구방법에 따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각각의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스트라우스(Strauss, 1987)의 개방적 코딩과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의 과정을 거쳐 각각의 자료들을 범주화하였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생 2인, 사회복지학 교수 2인의 논의와 자문을 얻었으며, 녹취록과 연구 결과를 통해 나온 의미단위를 참여자들에게 재진술함으로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를 위해 참가한 꿈프의 참가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꿈프에 참가한 가정의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꿈프의 참가 경험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스트라우스(Strauss, 1987)가 제시한 진술의 의미를 분석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개방적 코딩과 중추적 코딩, 선택적 코딩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은 213개였다. 이를 토대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모아 64개의 하위범주와 1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범주와 하위범주의 내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구분	범주	하위범주
1	양육자의 신앙적 배경: 중도위기	문화와 사회의 유혹에 넘어감
		중도에 신앙생활의 위기를 겪음
2	양육자로서 원가족에게 받은 양육 방식: 대물림	긍정적 양육방식의 대물림
		부정적 양육방식의 대물림
		감정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의 대물림
		방인적 양육태도
3	양육을 위한 준비 및 정보 습득 통로: 무지와 편견	주변에서 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음
		교회와 직장에서 정보를 얻음
		건강한 양육에 대한 막연한 바람
		양육에 대한 준비 없이 양육을 시작함
4	꿈프 참가 이전 부모의 양육 스타일: 일방불통	부모 주도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양육스타일
		상호 불통의 양육 방식
		부모의 감정적 언어습관
		부모의 양육에 수동적인 자녀의 반응
5	꿈프 참가 이전 가정 생활양식: 부재와 한계	엄마의 양육에 대한 강한 불만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함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의 부재
		교회 중심의 신앙교육
6	꿈프에 대한 기대와 참가 동기: 열망에 응답하다	개별적인 노력의 한계에 직면
		신앙교육을 위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함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도움 기대
		가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부모로서 스스로에 대한 변화
		꿈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
7	꿈프 참가 초기의 어려움: 습관과 의지의 충돌	기존 생활양식과의 충돌
		규칙적인 생활의 어려움과 부담감
		불신자 가족과의 갈등
		직장으로 인한 어려움
		양육자의 변화에 대한 의지
		양육자의 강력한 의지와 가족 약속
8	꿈프 실행의 어려움 극복 요인: 약속과 지속적인 도전	감정적 해소를 통해 적응을 이루어감
		교육을 통한 자기 성찰: 권위를 내려놓다
		자기 반성을 통한 지속적인 도전
		양육자로서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
9	꿈프 참가	감정적 해소를 통해 적응을 이루어 감
		남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름을 인식
		자녀에 대한 새로운 시각: 존중과 주체성 인정
10	꿈프 이후	상호 교감적 의사소통: 상호 인정과 권유
		자녀 중심의 양육의 기준 마련
		문제 상황에 대한 양육자의 인내와 긍정적 태도

구분	범주		하위범주
11		자녀의 변화1: 내가 소중하다	가정과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 존중감 향상
			생활 속에서 주도적,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아이들
			규칙에 대한 책임감 형성
			자기표현 능력이 고양되다
			부모에 대한 경계심을 해제하다
12		자녀의 변화2: 하나님과 나	정기적인 큐티의 정착
			하나님 중심의 자아 발견
			신앙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13	꿈프 참가 이후	가정의 생활양식1: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다
			가정에 대한 기대를 갖다
			가정과 교회의 연합을 이루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다
			무릎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다
14		가정의 생활양식2: 성경적 생활양식의 정착	가정에 대한 성경적 정체성 확립
			참여적이며, 배려적인 식생활 양식으로서의 전환
			대화가 TV를 대체하다
			성경 이야기가 일상의 대화가 되다
15		가정의 생활양식 3: 가정에서 행복을 찾다	가정예배를 기다리는 자녀
			가정의 변화 : 소통과 관계의 회복
			자녀들 간의 배려와 섬김의 관계 형성
			부부싸움이 감소와 대화의 시간의 증가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상호 교감적 언어로 표현.

### 〈표3〉 범주와 하위 범주

#### (1) 꿈프 참가 전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양식

꿈프에 참여하기 전, 가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태도는 부모 중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였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가정 내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가정 생활양식을 의도적으로 형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자들은 가정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성찰 없이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과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프에 참여하기 전 가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양식은 참가자들의 성장과정과 가족환경, 양육자로서의 기질과 양육태도, 가정과 양육을 위한 준비, 신앙적 경험과 배경, 신앙적 가정생활양식의 부재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주 1. 양육자의 신앙적 배경 : 중도위기

참가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양하였다. 다양한 신앙 배경 속에서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 경험은 연구 참가자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상관없이 중도에 신앙생활의 위기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가자들의 경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일학교의 출석인원이 줄어드는 현실과 상통한다. 참가자들이 경험한 신앙생활의 중도위기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였고, 이러한 의지는 자녀들의 철저한 신앙생활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고3 때까지(웃음~) 꾸준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이~제 이탈했던 것 같아요(사례 B2).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한~고등학교 때까지 쉰 것 같아요(사례 A1).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시작했어요. 때로는 엄마한테 안 혼나기 위해서 다닌 거고 솔직히 커서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는 시골에 계시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는데 좀 빠지기도 했어요. 방황도 했었고요(사례 F). 스스로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면역력, 그걸 아이들한테는 꼭 심어주고 심은 소망이 있었거든요(사례 B2).

### 범주 2. 성장 과정과 가족환경 : 대물림

참가자들의 성장과정과 가족환경은 가정에 대한 상을 정립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우엔(Bowen)에 의하면 원가족의 가족 정서과정은 세대 간에 대를 이어 전수되어 현재의 개인과 가족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Nichols, 2011). 양육자로서 참가자들이 원가족인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스타일은 양육자로서 참가자들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양육스타일이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되었음을 인식하면서도 대안적 양육스타일을 체득하지 못할 경우 부정적 요소들을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 ‘빛자루 가져와!’해서 때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때리지는 않더라도 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무섭게 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사례 C1). 그냥 그것, 내가 양육되어진 내 몸에 습득된 양육방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양육방식,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 생활에 특별히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 아! 재네

아빠는 저런 이야기도 해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었는데 우리 집은 아!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사례 D).

### 범주 3. 양육에 대한 무지와 편견

연구에 참여한 가정의 부모들은 가정의 생활양식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체계적인 훈련 없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더라도 주변 지인들을 통한 비전문적이고 학교 교과 학습과 관련된 것들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원부모와 주변인으로부터 학습된 습관과 정보들로 인한 사회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편견수준은 자녀들의 편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임지영·그레이스 정, 2012).

거의(웃음) 그냥 생각 없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냥 낳았으니까! 기본적인 이론조차도 없었어요. 어 뭐 양육에 관련된 책을 본다거나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생활. 어 부딪히는 생활? (음~) 그러면서도 제가 주도하에 저의 규칙을 강압적으로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사례 D).

### 범주 4. 부모의 양육 스타일 : 일방불통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 없이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맞이하였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부모의 경우, 권위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양육태도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더 심하였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들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과 틀을 정해 놓고 자녀들의 행동과 태도를 통제하고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사소통에서도 자녀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과 기준을 주입하려는 불통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방불통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일방통행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 주도하에 제 기준점을 다 틀을 맞추어놓고 아! 자! 이제 하자,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제 주도하에만 하다보니까(사례 B2). 한번은 ○○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왜 나한테 그러냐고 엄마도 약속한 거 안 지키면서 나를 뭐라고 하냐고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나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다고 그런데 왜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나를 키우느냐고(사례A1).

### 범주 5. 꿈프 참가 이전 가정의 생활양식 : 부재와 한계

연구에 참가한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동의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거나 성경적 생활양식을 영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적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쁜 일상과 세속 문화 속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찾고 있었고, 교회나 주변을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였다.

꿈프 하기 전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냥 교회를 같이 갔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프를 하면서 그것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교육이 전무했었구나(사례C1).

### (2) 꿈프 실행 :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열망

연구에 참여한 여섯 가정은 12주 동안, 각 가정에서 1주일에 한 번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행복한 가정예배와 부모와 자녀가 일대일로 진행하는 무릎성경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참여하는 기적의 밥상을 진행하였다. 부모들은 매주 일요일에 전문가들로부터 부모 교육을 받았고, 자녀들은 부모 교육 시간에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였다.

### 범주 6. 꿈프에 대한 기대와 참가 동기 : 열망에 응답하다

꿈프에 참가한 가정들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찾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유전해주기를 원했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적 면역력을 심어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신앙과 삶의 분리, 서로를 소외시키는 가정의 생활양식, 부모와 자녀관계의 불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경적 가정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소망하고 있었다.

저는 그게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접했을 때는 저는 예. 이게 기도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 사역을 저한테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지니까! 그럼 아이들도 같이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라고 그런 부분 많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 같아요(사례 B2). 그 전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하는데 구체적인 무슨 시스템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하고 싶으나 진행되는 나의 힘이 부족했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반가웠어요(사례 D). 그런데 제가 변해야 아이도 변한다고 하니까 제가 변하고 싶어서 꿈프를 하게 되었어요(사례 F).

### 범주 7. 꿈프 참가 초창기의 어려움 : 습관과 의지의 충돌

꿈프에 참여한 가정들은 초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먼저 꿈프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습관화된 기존 양육태도, 생활양식과의 충돌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미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축소된 부모의 교육적 역할의 회복은 쉽지 않았다. 기존 생활양식과 꿈프 생활양식의 충돌은 꿈프 활동이 가정에 정착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기존 양육태도,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양육태도가 쉽게 변화되지 않았고,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정과 규칙들로 인해 참가자들은 자책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바쁜 직장생활과 가족 행사 등의 외적 요인들로 인해 부모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처음에 할 때에, 일단 처음에 규칙을 정해 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약속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는데, 버거웠죠! 힘들었죠!. 애들도 그 습관에 맞추려고 하다보니 애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었죠! 아, 제 성격이 어떤 약속을 정하면 그것을 꼭 해야 한다는(사례 D). 남편이 말수가 적어요. 말수가 적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대화를 하면은 ○○가 좀 개구쟁이라서 밥 먹을 때 좀 불량하고 말도 사춘기 애처럼 툭툭 쏘거나 이렇게 말을 밋게 하면 또 아빠가 혼내는 거죠. 그게 행복한 시간이 돼야 하는데 자꾸 훈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사례 E1).

### 범주 8. 꿈프 실행의 어려움을 극복한 요인들: 부모의 약속과 지속적인 도전

꿈프 실행의 어려움은 예견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기존 생활양식에 익숙해진 가족 구성원들이 단번의 약속이나 의지만 가지고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프에 대한 양육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도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 또한 꿈프 운영위원들의 도움으로 꿈프의 생활양식을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생활양식으로 변형, 적용해가면서 꿈프 실행의 어려움을 차츰 극복해갔다.

아빠가 이것을 참여하는 동안에는 직장이고 무슨 모임이고 전부 싹 내려놓겠다. 무조건 그 시간에 딱 와서 너희들하고 대화하고 책도 읽고 공부하고 다하겠다고 약속을 정해 놓고 했어요. ○○한테 엄마 아빠도 너희들한테 한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례 A1).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이렇게 말싸움이 나니까 ○○가 이렇게 할 거면 예배를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트러블이 더 심해지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참는 거죠. 나도 참고 남편도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고 그걸 조금 개선하는 거 같아요(사례 E2).

### (3) 꿈프 참가 이후: 하나님의 가정

꿈프에 참가한 가정들의 변화는 각 가정들마다 다른 시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의 공통점은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 범주 9. 꿈프 참가 이후 부모의 인식과 태도 1 : 자기 반성적 성찰

꿈프에 참여한 양육자들 가운데 일어난 인식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양육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었다. 부모들은 양육자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생각과 언어습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양육태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양육자 가운데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양육 대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었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정당화하면서 행한 양육으로 인해 자녀들이 받았을 상처를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자녀들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였다.

꿈프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꿈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설령 내 생각이 정답이었어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사례 D). 서로 마음 들어주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서로에게 조심하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습관화가 된 거죠. 우선 각자가 가족이니까 ‘이해할 거야’ 라면서 험한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가끔씩 하긴 해도 욕하는 마음에 자기들끼리 하긴 하는데 그 서로에게 조심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사례 F).

#### 범주 10. 꿈프 참가 이후 부모의 인식과 태도 2: 소통과 공감

꿈프에 참가한 양육자들의 태도 변화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찾아왔다. 부모들은 일

방 통행적인 소통 방식에서 자녀들과 상호 교감하는 소통 방식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을 인정하고 권유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양육 대상을 존중하고 주체성을 인정하는 소통 방식과 반응 방식을 통해 자녀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갖게 하였다. 부모들은 그동안 강요하던 소통방식에서 ‘미안하다, 고맙다’등과 같은 치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울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공감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자녀 중심적인 양육태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너무나 미안한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좀 뭐랄까?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리이리해서 미안해’ 하면서 치유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큰애도 막 울고, 막 저도 울고, 특히나 큰애한테 상처를 많이 줬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사례 B2). 네 대화법 그거 교육받고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음 아이에게 공감해주는 아! 그랬구나. 아! 이래서 속상했겠구나! 그걸 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바뀌니까 ○○이도 속에 있는 말을 더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엄마한테 이런 것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제가 변하니깐 ○○이가 변한 게 보여요(사례 F).

### 범주 11. 꿈프 참가 이후 자녀의 변화 1 : 내가 소중하다

꿈프에 참여하기 전, 참가 가정의 자녀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부모에게 소속된 소유물이었다. 그러나 꿈프에 참여하면서 자녀들은 스스로 가정과 자신의 삶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서가기 시작하였다. 각 가정에서 매일 진행된 기적의 식탁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정리하면서 그리고 가정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아 진행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부모님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화요일이라든지 목요일은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둘이, 그러다보니까 밤에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해요. 화요일은 둘째가 하니까 목요일은 첫째가 해요. 아이들이 집안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사례 B2). 아이들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뭔가 작은 거 기도를 인도하게 한다든지 찬양을 고르라고 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씩 그렇게 주었을 때 아이들이 뭔가를 자기에게 제시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는구나 하는 성취감,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소중하다 내가 소중한 거’, 자존감이 더 높아진 거 같고, ‘내가 할 수 있어’ 자신감도 좋아진 거 같고(사례 D).



## 범주 12. 꿈프 참가 이후 자녀의 변화 2: 하나님과 나

꿈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매 주일 주일학교 예배시간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주중에 무릎성경을 통해 다시 한 번 듣게 된다. 또한 주중에 진행되는 가정예배에서 부모와 자녀는 동일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러한 반복학습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기억을 지속하게 해주었고 질문을 통해 진행되는 무릎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었다.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인식되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꿈프에 참여한 가정들이 12주간의 집중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꿈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해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4살)가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 누구 돌아가셨데, 그런데 할아버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런 식으로 반문하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영똥하면서 아 ○○이가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 교육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사례 C1).

## 범주 13. 꿈프 참가 이후 가정 생활양식 1 : 하나님의 가정.

꿈프는 가정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인식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꿈프’를 가정의 생활양식으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꿈프에 참가한 부모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성경적 가정상에 적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꿈프 집중훈련에 참여한 이후 꿈프에서 제안하는 F5를 가정의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꿈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꿈프는 저에게 어!,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을 주었죠. 그전에는 그냥 가정이었다면, 나의 가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 주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상의하고 무언가를 할 때는 꼭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저의 지식이 기준점이고 이랬다라면, 지금은 말씀, 말씀이 기준점이죠(사례 B2).

#### 범주 14 . 꿈프 참가 이후 가정 생활양식 2 : 성경적 생활양식의 정착

꿈프 참가를 통해 참가 가정들은 가정에 대한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참가자들은 꿈프에 참가하기 이전, 신앙과 가정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거나, 가정 속에서 신앙 생활양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연한 바람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꿈프 참가 이후에 부모들은 가정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하게 되었고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성경적 생활양식을 삶 속에서 영위하게 되었다. 식탁 문화에서도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뒷정리까지 함께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귀감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도 꿈프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변화를 가능케 하였다. 이제 참가자들의 가정에서 공감적 대화는 일상이 되었고 F5 활동이 자연스럽게 생활양식으로 정착되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정 속에서 자녀를 성경적 삶의 양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밥상머리 교육을 이야기해 주고, 밥 먹을 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교육을 얘기해 주고 최대한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아빠는 먹는 밥이니가 와서 먹여 주고, 처음에는 거의 아빠가 말을 안 했었어요. 식사시간에 하면서 저도 노력했고, 아이들도 자기들은 꿈프를 하는 것을 아니까 꿈프의 기적의 식탁은 이런 분위기여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거든요 엄마가 한 번씩 말을 꺼낼 때 그것을 인지하고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아빠가 섞이다보니가 그게 좋은 것을 아는 거예요. 밥상에서 대화하는 기쁨을 아는 것 같아요 남편이..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사례 D).

#### 범주 15. 꿈프 참가 이후 가정 생활양식 3 : 가정에서 행복을 찾다.

꿈프에 참여하기 전, 참가자들에게 가정은 단순히 부부 중심으로 형성된 가정이었다. 부모와 자식은 가정 안에 있지만 함께 모이지도, 함께 식사하지도, 함께 쉼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꿈프에 참여하면서 매일 기적의 밥상을 통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 행복한 가정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함께 어울리며 추억을 공유하였다. 무릎성경은 신앙을 교육하는 장으로서만 아니라 자녀와의 만남을 통해 자녀와 삶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은 소통과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였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은 자연스럽게 부부의 관계 회복으로, 형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가정이 훨씬 활기도 있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 엄마도 변하고 ○○도 변하고 저희도 변

하고, 이제 서로 믿어줄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면 서로 양보를 많이 했어요. 꿈프를 통해서 전에는 일반적으로 잘못했으면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얘기 얼마한테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쏘고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기분이 좋아졌을 때 서로 얘기를 꺼내요. 또 전에 밥을 먹으면 5분 10분이면 밥을 딱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30분도 있어요. 바쁠 게 없으니까 얘기도 느긋느긋하게 다하고 밥 먹고 치우고 나면 같이 모여 게임도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해요(사례 A1).

## V. 함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인 꿈프 참가자들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탐색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연구자는 꿈프 참가자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가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양식이 꿈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인 꿈프의 효과와 그 요인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 꿈프에 참여한 부모의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가정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 참가자들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은 '대물림'이라는 형태로 부모의 가정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원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이 인격 형성과 물리적,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남순현, 2009; 이우경·최은실 2013), 이러한 원부모의 양육태도는 세대를 통해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owlby, 1988; 김진숙, 2013).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되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물림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부모들은 개별적으로 거부적이고 공격적인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부정적 대물림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문희와 이수림(2015: 435)은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변화와 가정과 주변의 새로운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변화를 가능케 하는 전문적인 개입과 가정과 주변의 지지적 관계 형성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변화를 가능케 하고 긍정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생활양식과 같은 생활체계에 대한 정립과 지역사회와 교회와 연계된 지

지체계의 수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연구에 참가한 가정 가운데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다. 부모의 의지에 의해 간헐적으로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성경 읽기와 같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참여 부모 가운데는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에 대한 원인으로는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와 부모의 가치의식의 변화와 같은 가정 내적인 이유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박진숙, 2004). 그러나 나삼진(2005)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 신앙교육의 부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신앙교육에 소홀했고,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 교육이 부재했으며,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칼빈은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목사나 교회에게 부여하였다(Eaevy, 1978). 교회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신앙적 훈련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기독교 가정생활 양식의 변화 경험으로 인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는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꿈포에 참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가족 생활 교육과 목회적 차원의 가정사역, 교육적 측면의 가정교육 프로그램과 연구는 대부분 그 대상을 부모와 부부에 집중한다. 그리하여 가정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양육은 사회복지학, 가정학, 교육학, 신학, 상담학 등 다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학문 간 연구와 실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생활 교육의 대상이 이자 관계 이상일 때 교육의 효과가 높지만 시간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인해 대상별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정현숙, 2012).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꿈포는 그 대상을 가정 구성원 전체로 하며, 개인과 가족, 가족체계를 지원하는 다수준적(Multi-level) 접근 방법으로, 신앙교육과 인식 전환교육, 공동체 활동과 생활양식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수행되었다. 각 활동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꿈

프를 통해 가정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행하는 성경적 생활양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 가족, 가족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준적 접근 방법의 가족생활 교육이 갖는 장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별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생활 교육보다는 꿈프와 같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가족의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새로운 양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간 교회의 가정 사역은 여전히 교회 중심적이며, 사후약방문식의 치료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는 오늘날 제기되는 가정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기관으로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서로의 존재이유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와 가정이 각각 성경에서 규정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교회의 사역과 가정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참가한 가정의 부모들은 결혼 전 가정의 생활양식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체계적인 훈련 없이 가정을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육에 대한 무지는 부모들의 권위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양육방식과 아동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도현심, 201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에서는 결혼을 앞둔 신앙인들이 가정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결혼 예비학교'와 같은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출산이나 입학과 같은 자녀의 생활주기에 따른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셋째, 가정과 교회,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가정의 문제는 결코 가정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문제로 확장된다.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가정이나 교회보다는 학교와 학원을 포함한 지역사회이다. 또한 우리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지역사회에 원인이 있거나 그 해결방안을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이고 통전적인 양육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꿈프 참가자들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을 제안하고, 꿈프 생활양식의 경험이 참가자들의 인식과 태도, 생활양식의 변화에 미친 효과를 밝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형태의 양육모형을 제시하고, 기독교 가정의 생활양식을 제안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12주 동안의 꿈프 집중훈련을 성실하게 참여하고, 꿈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연구 대상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부분, 물량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갖는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교회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형태의 다양한 통전적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신앙양육 공동체로서 가정의 생활양식을 정립하기 위한 학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구재익 (2015). “기독교 가정 교육 실재로서의 가정예배.” 『신학지평』, 28. 149-178.
- 권오진 (2012). “성경적 가정 세우기.”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김기숙 (2006).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도일. (2015). “가정과 교회의 유기적 관계 회복을 통한 신앙교육 : 가교사역, 건 강한 신앙학습생태계 형성에 대한 연구와 제안.” 선교와 신학. 36. 11-45.
- 김미애 (2008). “기독교 관점의 가족치료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학연구』, 3. 25-39.
- 김선아 (2010). “유아를 위한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부모교육.” 『기독교문화연구』, 15. 223-249.
- 김성원 (2012).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제안.” 『기독교 교육정보』, 33. 117-150.
- 김수정 (2012). “교회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및 부모역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사회사업』, 20. 7-36.
- 김진숙 (2013). “애착이론의 내적 작동모델과 상담적 적용점.” 『상담학연구』, 14(4). 2485-2507.
- 김현자 (2007). “P.E.T.와 현실요법을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 기술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4. 95-121.
- 김혜자·이성희 (2011). “유치원에서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적용 효과.”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2. 277-295.
- 나삼진 (2005). “교육공동체로서 가정과 그 교육적 역할 증진 방안.” 『복음과 교육』, 2. 188-210.
- 남순현 (2009). “3세대 모녀의 아동기 신체학대와 가족분화수준의 세대 간 전수.” 『인간발달연구』, 16. 185-201
- 박명수 (2013). “아동기 신앙형성을 위한 가정예배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박미라 (2012). “학교상담현장에서의 위기유형 분류와 기독교 가정교육(사역)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30. 81-107.
- 박상진 (2009). “한국교회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독교교육논총』, 20. 53~83.
- 박은배 (2010).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족치료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 박진숙 (2004). “현대 기독교 가정의 특성과 기독교 가정교육론의 방향.” 『기독교와 교육』. 12. 58-75
- \_\_\_\_\_ (2013). “가정예배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교육적 방안.” 『성경과 신학』. 68. 1-26.
- 박행님 (2009). “기독교가정생활교육의 내용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 배호준 (2003). ““기독교 가정교육에 대한 연구” 그 역사적 고찰과 과제 및 방법론.” 박사학위논문. 위싱턴신학대학교.
- 백성재 (2010). “가정예배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가치실현을 위한 연구.” 『신학지평』. 227-256.
- 신승범 (2013). “기독교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의 재발견.” 『복음과 교육』. 14. 185-206.
- 오인택 외 (1994).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옥장흠 (2012). “통전적 기독교교육 모형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2. 61-64
- 이광희 (2006). “인터넷 환경에서 영아의 부모를 위한 주간 교회교육 교육과정모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이규민 (2013). “세계화 시대를 위한 기독교가정교육의 방향성.” 『기독교교육논총』. 33. 145-173.
- 이문희 · 이수림 (2015). “부정적 양육의 대물림 극복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6. 417-438
- 이우경 · 최은실 (2013). “아동기 외상 경험이 경계선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애착 불안정의 매개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32(2). 413-430.
- 이정관 (2015). “건강한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독교교육적 돌봄.” 『기독교교육논총』. 44. 177-206.
- 이현아 (2014). “가족식사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 인식을 중심으로.” 『한가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 103-116.
- 이혜숙 · 조혜진 (2009). “교회사회사업 실천을 위한 기독교인의 개인상담과 가족상담 욕구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10. 113-140.
- 임지영 · 그레이스 정 (2012). “청소년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부모의 영향 및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대처양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 1-11.
- 장금석 (2011). “기독교 가정과 비기독교 가정의 자녀양육태도 비교.”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장화선 (2004). “교회교육을 통한 가정사역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신학지평』. 17. 29-57.



- 정정숙 (1994). “부모교육: 기독교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상담과 선교』, 2(2), 35-52.
- \_\_\_\_\_ (2004).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 정현숙 (2012). 『가족생활교육』. 서울: 도서출판 신정.
- 정희정 (2009). “성경적 상담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홍신대학교.
- 최정민 (2016). “기독교 부모역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ushnell, H. (1979). *Christian Nurture*. 김도일 역 (2004). 『기독교적 영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Creswell, J. W. (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13). 『질적 연구 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Earvey, C. C. (1978). *History of Christam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 Joiner, R. (2009). *Think Orange*. 김희수 역(2011). 『싱크 오렌지』. 서울: 디모데.
- Levi Strauss, c. (1969).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 Boston: Beacon Press.
- Nichols, M. P. (2011). *The Essentials of Family Therapy*. (5th ed). 김영애·김정택·심혜숙·제석봉 역 (2013). 『가족치료: 핵심개념과 실제적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 Sell, C. M. (1981). *Family Ministry: The Enrichment of Family Life through the Church*. 정동섭 역 (1997). 『가정사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 Smart, J. D. (1954).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An Examin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Christian*. 장운철 역 (1991). 『교회 교육적 사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trauss, A. L. (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 (4th ed). 신경식·서아영 역 (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 지원과 218” (2012.3.6.)

## Abstract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Christian Family that Participated in Lifestyle Change Programs

Kyeng-Gun Jang (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s of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Creating a Dreaming Land Project” as a home lifestyle change program. Furthermore, the study aimed to verify the project’s effects, and to suggest specific examples of childrearing programs where the home and the church are linked. The methodology involved the husbands and wives of six households from families participating in the initiative through the purposive sampling method, and analyzing them with the approach suggested by Strauss (1987).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rough open, axial, and selective coding processes, 213 meaning units, 64 subcategories, and 15 categories were formed. Perceptions, attitudes, and lifestyles in the home recorded prior to project participation yielded the following categories: 「midway crisis」,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gnorance and prejudice」, 「unilateral and miscommunication」, 「absence and limits」. Moreover, these categories showed that believers were unable to make their homes function as religious childrearing communities. The changes that resulted from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produced categories such as 「respond to aspirations」, 「promises and continuing challenges」, 「self-reflective introspection」, 「communication and sympathy」, 「I am valuable」, 「God and myself」, 「A home of God」, 「living as a religious childbearing community」, and 「togetherness is familiar」. In addition these changes indicated that the household members involved in the project were solidifying their identity and lifestyle as part of a religious childrearing community. Lastly, this study emphasiz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hurch and the home, the goal being to overcome the crisis facing them, and suggests specific techniques to maintain this connection.

Key Words: Christian family, nurturing community, lifestyle, parent education, parenting experience, qualitative study